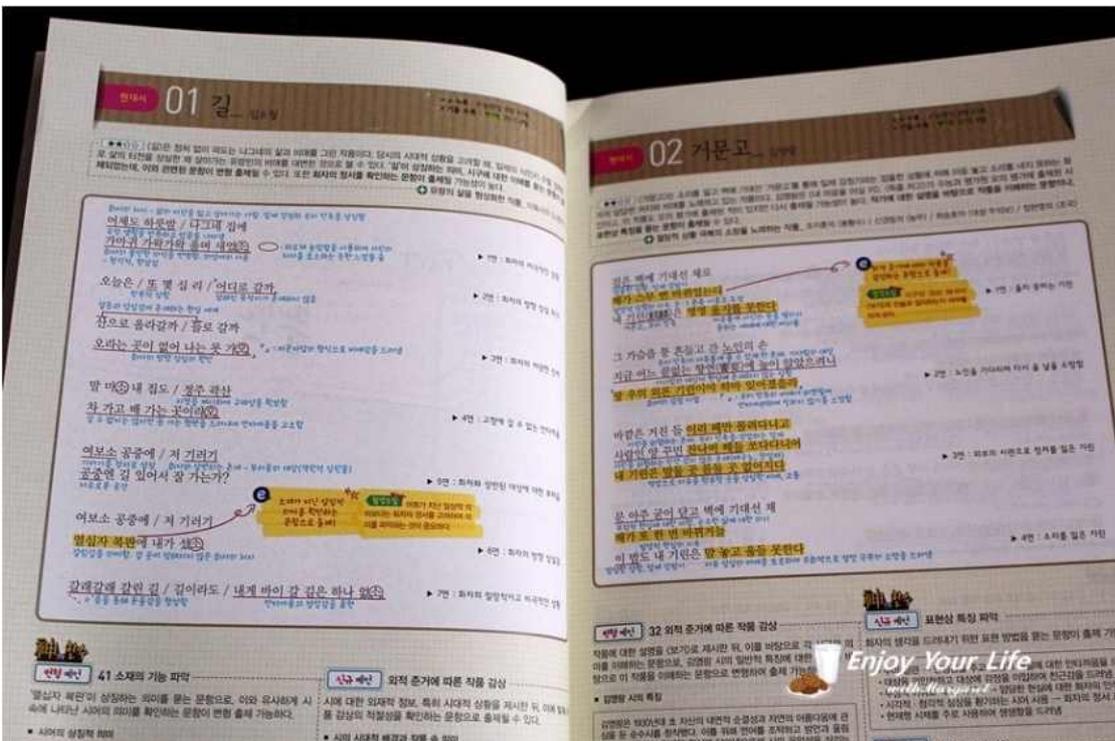


이 책을 통해 파이널기간에 잘 맞는 학습전략들을 모았습니다. 여러가지 학습전략들을 보게 될 텐데, 그중에 본인에게 필요하고 맞는 방법을 잘 선별하여 채택을 하면 됩니다.

수능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파이널기간은 최대한 효율적인 공부를 하여 여태까지 받았던 모의고사 점수 중 만족스러웠던 점수를 수능점으로 얻을 계획입니다.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남은기간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응급처치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암기’입니다.**

현대시, 고전시가는 EBS에서 유독 연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암기가 상당히 잘 먹히는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시, 고전시가에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지금시점에서 선택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EBS연계교재의 시를 내신공부 하듯이 ‘암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암기는 아주 완벽한 수준까지는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수능은 객관식이거든요. 일단 EBS분석노트 국어영역을 구매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EBS분석노트에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내신공부하듯이 암기해 놓으시면 기초가 아주 없지 않은 이상 시간대비 효율로 가장 나을 것입니다.

***배경지식이 취약한 비문학 제제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을 키우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좋은 학습전략입니다.**

제가 파이널 기간 여러분에게 권하는 방법으로 배경지식을 익히라는 것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사실 배경지식 몰라도 고득점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기본적인 배경 지식만 가지고도 강사가 시키는 독해법 따라 해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고득점이 가능한 한데, 그 고득점 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킬러지문에 시간을 오래 묶이거나, 점수기복이 생기기 쉽상이고 실전수능에서 멘붕이 와가지고 망할 가능성이 배경지식이 풍부하여 안정적으로 지문이해를 할 수 있는 학생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거죠. 6.9 1등급 나왔던 학생이 수능에서 1교시 국어3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어달 남은 파이널기간동안 공부의 핵심이 '약점공략'에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배경지식에 투자를 할만 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어 배경지식을 익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실제로 수능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올려놓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문서에 여러 분야의 글을 폭넓게 읽으면서 기본 개념이나 대상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글내용이 있습니다. 배경지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독서이죠.

하지만 파이널 기간에 수험생들이 시간이 없으므로 독서를 통해 배경지식을 키우기에는 빠듯합니다. 수험생들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책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소년 권장도서만 해도 수백 권인데, 그 책을 읽으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져서 시간낭비를 하는 문제이죠. 더군다나 파이널 기간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이널 기간에는 모든 분야의 배경지식을 익히는 건 불가능 합니다. 배경지식을 익힐 분야는 비문학 제제중에 본인이 취약한 한두개만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출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제자의 의도는 어떻게 분석하라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 분석’이다. 여기서도 독자들이 의문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시전문가와 우등생들의 인터뷰자료에 나오는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라’라는 단골멘트는 평범한 학생에게 답답함을 남길 뿐이다.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서점에 있는 고등수학문제집 해설지를 잘 보면 의외로 꽤 많은 문제집에서 해설 끝에 출제자의 의도가 간단하게 적혀있다. 몇몇 수학문제집이 해설지에다가 출제자의 의도를 적어놓는다고 해도 문제집마다 적어놓은 출제자의 의도가 다른 느낌이다. 문제집을 제작하는 사람들마다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다.

지금부터 필자가 알려주는 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 출제자의 의도 분석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총 세 가지를 고려한다.

1. 교과서의 학습목표-해당 문제가 교과과정에서 어떤 개념을 소재로 만들어진 문제인지 생각한 뒤, 교과서를 펴라(시중 기본서가 아니라 교과서!). 그 문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교과서의 학습목표를 찾아내면 된다.
2. 수능출제 메뉴얼의 행동영역-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능력 총 4가지를 수학적 능력에 ‘행동영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한다. 이 4가지 중에 해당 문제가 어떤 능력 위주로 요구하는지 파악한다.
3. 다른 문제에서 똑같은 풀이방식이 쓰이진 않았는지- 기출문제는 변형에 변형을 거듭한다. 이 변형은 보통 원형문제의 풀이방식을 기준으로 포장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만약에 출제자가 미분과 기본연산을 활용하여 그래프 개형을 알아내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변형해 똑같은 풀이방식이 쓰이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고 가정

하자. 이때, 출제자는 당연히 우리가 ‘미분과 기본연산을 활용하여 그래프 개형을 알아내어’ 문제를 풀기 원할 것이다.

교과서의 학습목표, 수능출제 메뉴얼의 행동영역, 다른 문제에서 똑같은 풀이방식이 쓰이진 않았는지를 고려하여 출제자가 우리에게 평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구체적으로는 각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문제의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을까?’, ‘어떤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문제를 냈을까?’ 하고 고민을 해 보라.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내면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할 수 있다.

분석한 출제자의 의도를 공간도형/벡터 단원을 예를 들어 보여주면 이런 느낌이다.

정사영을 이용하여 수학 내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가

뒀음 도형을 이용하여 정사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정사영을 이용하여 최댓값을 구할 수 있는가

공간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가

정사영의 성질과 평면의 위치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가

사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낸다는 말 자체는 말이 안 될 수도 있다.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도 모르는데, 얼굴도 모르는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냈는지 학생이 알 수가 있나? 단지 필자가 알려준 방식대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방식도 결국 저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정확히 말하면 추측)하는 학습

방식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유용하다. 이번에 이야기 해 주듯이 역사지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출분석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기출문제의 역사지도이다.

바로 앞에서 세 가지 공부방법을 이야기했다. 하나는 기출문제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한꺼번에 하는 것을 기출문제를 분석한다고 정의할 것이다. 추가로,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접근방식을 체계화 시키라고도 조언했다. 기출 분석과 반복되는 접근방식의 체계화..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기출문제의 역사지도를 머릿속에 넣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훈련을 열심히 하면 소재별로 어떤 문제가 어떤 포장방식으로 변형되어 왔는지 기출문제의 역사가 지도처럼 펼쳐진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렬의 합답형 문제가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되었냐고 물어보면, 어떤 접근방식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되어서 문제가 만들어졌고,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역사지도를 머릿속에 넣게 되면 문제를 보는 눈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이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효율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다시 차근차근히 고민을 할 때 기출문제의 역사지도는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기출문제의 역사지도는 여러분의 발상능력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취향에 따라 최근 500~1000문제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어차피 최근 5~8년 기출문제는 파이널기간을 남긴 학생이라면 이미 눈에 확실히 익어 놓을 만큼 공부했으므로 푸는 시간이 짧게 걸리므로 이 작업이 남은 기간동안 과한 작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파이널 기간에 할 수 있는 공부로 상당히 효과가 좋다. 기출분석은 역사지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라.

1~3등급이 남은 기간동안 문장구조를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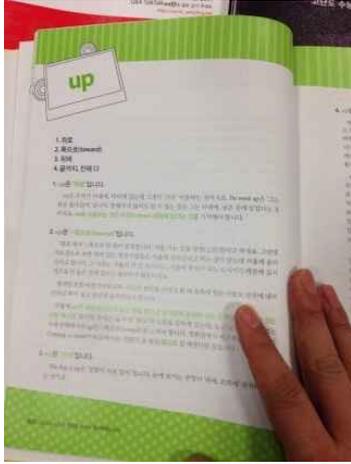
영어 등급이 1~2등급인 학생들은 급하게 새로운 책을 구매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3등급은 케바케라 딱 잘라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EBS연계 교재 지문을 꼭 훑어보듯이 공부를 하시면서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매끄럽게 해석되지 못한 문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ebs 연계교재에서 이런 문장들을 모두 수첩에 옮겨 적으세요. 매끄럽게 해석하지 못한 이유와 해결 방안을 간단하게 적어놓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학습방법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죠.

my friend was disappointed that scientific progress has not cured the world's ills by abolishing wars and starvation; that gross human inequality is still wide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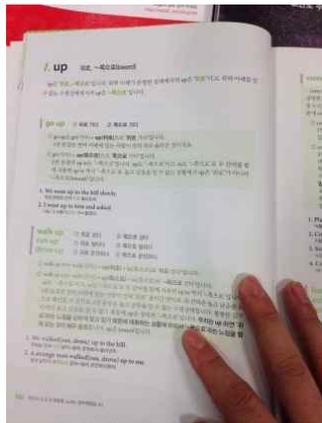
이 문장은 ; 뒤에 that이 앞의 that과 병렬구조라는 것을 잘 못봤다. ;가 병렬구조일 수도 있으니 유심히 봐야겠다. 특히 절에 한해서는 더 유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EBS연계교재를 공부하면서 얻어낸 독해방법들을 체계화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남은 기간 매끈한 독해를 방해하는 전치사 내재화 하기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각각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의미를 설명해주고



각각의 의미별로 예문을 아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동사와 결합을 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능을 공부할 때 of, in, to, for, with, on, at, from, by, about
as, into, like, through, after, over, between, out, against, during
without, before, under, around, among 등등.. 약 25개의 전치사를 알아야 합
니다. 추천드린 이 교재를 공부할 때 이 전치사의 의미들을 암기하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추천드린 교재를 숙어단어장으로 생각하
여 교재의 숙어들을 암기하면 큰일 납니다. 수능에 필요한 약 20개 중반 내외의
전치사의 의미들을 정확히 짚어보고 음미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작업도 시간
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단어 25개 외우는 거랑 똑같죠. 단지 조
금 깊게 외우고 이해까지 해야 할 뿐.

파이널 기간이기 때문에 이 공부의 목표는 전치사가 수능에 등장했을 때 전치사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해석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세
요. 이 목표를 이룬 것 같다 싶으면 당장 전치사 공부를 떼고 남은 시간을 활용해
다른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평가원 빈출 단어.

affair

①사건 ②사무 ③일

account : ㉠ 계좌, 설명

㉡ (for)설명하다, 차지하다

a couple of : ① two ② a few

address : ㉠ 주소

㉡ ① 연설을 하다 ② ~을 경칭으로 부르다

age

①나이 ②노령 ③시대

I haven't seen him for ages.(오랫동안)

air

①공기 ②공중 ③분위기 ④태도

aspect

①양상 ②외관 ③관점 ④용모

affect : ① 꾸며대다 → ㉠ affectation ② ~에 영향을 미치다 → ㉡ effect

allowance : ① 수당 ② 허가

alternative : ① 양자택일(의) ② 대안(의), 대신(의)

apply : ① 지원하다(for) ② 적용되다, 적합하다(to)

appreciate : ① 이해하다 ② 감상하다 ③ 감사하다

apprehend : ① 이해하다 ② 염려하다 ③ 체포하다

art ①예술 ②기술

atmosphere

①대기 ②공기 ③분위기 ④환경